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

조혜란*

<차례>

- I. 서론
- II. 심리 묘사와 사건의 관계 : 감정 서술의 경우
- III. 외모 묘사와 가치의 문제 : 외모 서술의 경우
- IV. <소현성록>의 두 얼굴-비균질적인 서사 전개
- V. 결론

〈국문초록〉

〈소현성록〉은 국문장편소설의 효시로, 별전과 본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논의를 통해 이 작품이 17세기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소현성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상당히 축적되어 왔다. 그런데 기존 논의는 주로 인물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문소설 연구에서 주목하는 문체나 서술에 대한 논의는 매우 드물다. 이런 연구사의 필요에 의해 본고는 〈소현성록〉의 서술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며 그 중 묘사에 주목하고자 한다. 〈소현성록〉에서 묘사는 주로 두 가지 경우에 그 빈도수가 높았는데 하나는 심리 상태나 감정 상태를 서술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등장인물의 외모에 대한 서술을 하는 경우였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소현성록〉의 묘사 양상을 살핀 결과, 본전의 경우는 심리 묘사가 훨씬 많이 전개되고 외모 묘사에서는 얼굴 생김 자체에 대한 묘사가 많으며 아름다움이 곧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에 비해 역동성 있는 서사로 간주되었던 별전의 경우는 심리 묘사 어휘는 본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대신 행동을 서술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감정 자체에 대한 서술 대신 예법 준수 여부를 더 중요하게 서술하고 있다. 본전에 비해 자유롭게 보였던 별전이 본전 못지않게 예법과 이념에 경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별전이 새로운 서사를 기획하기

* 이화여대 전임강사

보다 고전소설의 하위 장르 관습에 기대는 창작 태도를 보이는 것과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소현성록>은 17세기 조선의 가부장제 기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본전과 별전 모두 여기에 충실하다. 기존 논의에 의하면 별전의 서사가 본전의 서사보다 훨씬 역동적이며 흥미로우므로 본전보다 별전의 작가가 고전소설의 이야기에 더 익숙한 작가일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그러나 <소현성록> 연작의 묘사 양상을 고찰한 결과, 일견 역동적이고 자유로워 보이는 별전이, 정적이며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본전보다 더 이념에 따른 공식적인 서술을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이념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본전이 당대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을 더 껴민하게 그려내며 진지한 작품 세계를 지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소현성록>, 가문소설, 국문장편소설, 묘사, 서술, 외모, 심리, 감정, 인물, 아름다움, 덕/색, 가부장제

1. 서론

고전소설사에서 17세기는 <홍길동전>, <구운몽>, <사씨남정기> 등 본격적인 국문소설이 출현하는 시기이며¹⁾,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국문 장편소설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소현성록>은 가문소설 혹은 국문 장편소설의 효시가 되는 작품으로, 그 창작 연대가 17세기임이 밝혀지면서²⁾ 학계의 꾸준한 주목을 받아왔다. <소현성록>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면, 창작 연대를 밝히고 17세기 종법제 강화와 관련하여 논의를 펼친 연구³⁾로부터 시작하여 17세기 소설사와 관련한 논의⁴⁾가 있으며, 인물에 관한 연구⁵⁾ 및 혼인 형태, 별열 등 다양

1) 장효현, 「전기소설의 장르 개념과 장르사의 문제」,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 출판부, 2002, 72-77.

2)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4 참고.

3) 앞글.

한 제재를 다룬 기타의 연구⁶⁾ 등이 있다. 그런데 기존 논의를 보면, 상당한 논의가 인물에 집중되어 있고 주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논의가 진행된 반면 작품의 구성이나 서술 방식에 대한 논의가 드문 것을 알 수 있다.

국문 장편소설의 경우는 초창기 연구부터 장편화 방식에 대한 논의⁷⁾가 진행되었고, 후속 연구에서도 작품의 구성 원리, 문체적 특성, 연작의 방식 등 양식적 특징 및 서사 문법에 대한 연구⁸⁾가 제시되었으며,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에서도 서술 방식의 특징⁹⁾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연구자

-
- 4)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한국고전연구』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정길수, 『한국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이 중 정길수의 논의에는 17세기 소설의 장편화 방식과 더불어 <소현성록>의 서술 방식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 5) 문용식, 「<소현성록>의 인물형상과 갈등의 의미」, 『한국학논집』31,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7; 이주영, 「<소현성록> 인물 형상의 변모와 의미-규장각 소장 21권을 중심으로」, 『국어교육』9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장시광, 「<소씨삼대록>의 여성반동인물연구」, 『은지논총』9, 2003; 장시광, 「<소현성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 양상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11, 2004;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과' 연구」, 『한국고전연구』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6)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4, 한국고소설학회, 1998; 조광국, 「<소현성록>의 벌얼 성향에 관한 고찰」, 『은지논총』7집, 2001; 박영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공주혼의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7) 국문 장편소의 장편화 방식에 대한 논의는 김홍균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이 논의는 김홍균, 「복수주인공 고전장편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0 참고.
 - 8) 송성욱, 「대하소설의 양식적 특징」, 『한국 대하소설의 미학』, 월인, 2002, 37-117; _____, 「대하소설의 서사문법」,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21-205.
 - 9) 정창권은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장편 여성소설의 글쓰기 방식'을 다루면서 '세상사는 이야기와 장편화, 일상 생활의 소설화, 대화체적 글쓰기, 설화적 표현성과 신비성-또는 현실성'을 들고 있고, 정병설은 <완월회맹연>의 '여성적 면모'를 다루면서

들이 고소설의 다른 하위 장르의 작품들에 비해 국문 장편소설이 지니는 차별화 지점으로 그 서술 방식에 주목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소현성록> 역시 다양한 등장인물을 형상화하면서 대화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 다거나¹⁰⁾ 감정이나 심리 상태, 외모 등에 대한 묘사를 섬세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논의가 필요한 작품이다. 이 같은 연구사의 필요에 의해 본고는 <소현성록>의 서술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묘사’에 주목하고자 한다. 묘사는 관찰자의 시각적 인식을 토대로 하는데 시각은 지각과 밀접하므로 묘사에 대한 고찰은 결국 관찰자 혹은 서술자의 인식을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소현성록>에서 묘사는 주로 두 가지 경우에 그 빈도수가 높았는데 하나는 심리 상태나 감정 상태를 서술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등장인물의 외모에 대한 서술을 하는 경우였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서술에 주목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묘사의 경우, <소현성록>의 본전과 별전이 균질하지 않은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¹¹⁾. 본고는

‘가중사(家中事)를 섬세하게 서술한 점, 등장인물의 심리가 심도 깊게 분석되거나 확대된 점,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 제도에 대한 불만이 은근히 표현된 점, 여성의 바람이 드러난 점’ 등을 들고 있다. 정병설, 『조선 후기 여성소설과 남성소설의 비교 연구』, 『국어교육』10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2, 418. 두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성소설’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재론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논의는 소재, 장편화 방식, 대화체 사용, 섬세한 서술, 심리 묘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결국 <완월회맹연>의 서술 방식에 대한 관심이다.

10) 정길수는 <소현성록> 본전의 서사 분량 확대는 거의 예외 없이 가정 내에서의 소소한 일상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정길수(2005), 292-297.

11) <소현성록>은 소현성을 중심으로 한 본전과, 그 아들 대를 중심으로 한 별전이 연작의 형태로 합쳐져 전해진다. 기존 논의에서도 본전과 별전의 차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그 근거로 든 것은 등장인물 서술 순서의 차이, 인물의 성격 변화, 장회 투식의 사용 유무 등이었다. 본전과 별전의 차이를 언급하고 각각의 작가가 다를 것이라고 추정된 논의로는 정병설, 『장편대하소설과 가족사 서술의 연관 및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12집, 1997, 239; 정길수(2005), 178-185 등이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소현성록>에 나타난 심리와 외모에 대한 묘사 방식을 고찰하고, 본전과 별전의 묘사에서 드러나는 차이가 갖는 의미를 살펴 그것이 <소현성록>의 작품 세계와 연관되는 지점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본고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본은 이화여자대학교 소장본으로, 전권이 15권으로 되어 있다. 이 이본은 1권부터 4권까지가 본전이고 5권부터 15권까지의 내용이 별전에 해당한다.

II. 심리 묘사와 사건의 관계 : 감정 서술의 경우

1. 본전의 경우

<소현성록> 본전은 소현성이 세 부인을 얻는 과정이 서사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화씨, 석씨, 여씨와 소현성의 심리 상태에 대한 서술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소현성록> 본전에 나타난 희노애락 등의 심리 상태에 대한 서술을 살핀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쁨이나 즐거움과 같이 긍정적인 감정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 심리 상태가 묘사되지 않고 주로 ‘환희호야 담쇠즈약현대’, ‘불승환희호야 집잡아 드리니’, ‘만심 환희호야 급히 턱일호야 보내니’와 같이 간단하게 언급한 후 곧장 다른 내용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슬픔이나 노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소현성록> 본전의 경우 심리 묘사가 자세하다고 느꼈다면 이는 주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서술들일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의 경우도 화씨와 석씨 두 부인과 관련한 장면인 경우에는 그 서술이

본전과 별전의 작가가 같을 것이라고 추정한 논의들도 있는데 임치균, 『조선조 대장 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71-78; 박영희(1994), 32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본전과 별전의 차이에 대해서는 IV장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비교적 자세한 반면, 여씨의 경우에는 소략하게 나타난다. 예문 ①, ②는 소현성이 두 번째 부인인 석씨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서술된 화부인의 심리 묘사들이며, ③, ④는 소현성의 둘째 부인이 된 석씨가 보이는 심리 상태이다.

① 이제 화시의 석파의 부인과 상셔도 "물 보고 통입끓슈흐야 노귀 불연
 흐니 괴식을 알 니 이실가 두려 침소로 도라와 혼자 안자 석파를 꾸지즈며
 상셔를 흐흐디.....축을 허매 상셔 드러왔거늘 화시 분을 춤디 못흐디 더의
 업슈흐를 보매 발뵈디 못흐여 스매로 늦출 가리와 눈물을 흘니며 냥즈를 수
 업시 두드려 두 아히 일시의 우는디라 상셔 임의 아라보고 각별 본테 아니
 코 자리의 나아가 자니 화시 냥즈의 세를 김히 미더 두 아히를 무중히 터
 상셔의 노를 도" 더 상셔 무춤내 요란타하는 말도 아니" 화시 흘 일이 업
 서 축희의 안자 새도록 자디 아니디 상셔 또흔 못디 아니터니 뉘이 올매 싱
 이 니러 안정히 췌소관세호고 신성호라 드러가니 화시 또흔 드러가 문안호
 고 왔터니 이 밤의 또 상셔 드러와 잠식 화시 노귀 불연흐야 새도록 흐흐며
 서안을 더흐야 자디 아니디 상셔의 괴식이 유환호고 스키즈약흐를 보고 평
 게 어들 연괴 업고 또 여러 날을 근노흐야 세오니 심히 혼곤흐디라 노귀를
 굶치고 누어자니 상셔 또흔 본테 이났터니¹²⁾¹³⁾

② (화씨가) 눈물이 스스로 소사나니 춤디 못흐여 횡혀 부인이 보실가 두
 려 머리를 수겨 심분 무음을 널니 흐터라 이 날 상셔 드러와 문안호고 화시
 와 띄서 안자 길복 일우물 보고 김히 헤오더 테 어인 투약으로 도로혀 티장

12) <소현성록> 권2, 26-27.

13) 예문의 띄어쓰기와 밑줄은 논의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밑줄의 경우는 주로 감정 자체에 대한 서술에 표시했으며 경우에 따라 감정을 수반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서술도 포함하였다. 이는 다음에 논의할 외모 서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 얼굴 자체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풍채나 자태 등에 대한 것도 밑줄에 포함하였다. 이 후에 제시하는 예문 역시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을 스스로 하시고 또 그 슬픈 빛을 보고 일단 은정이 어엿비 너기미 있더라……소시 더 화시의 즈가옥을 그릇 너기나 더의 심히 설위함을 보고 일변 경도 조협 함을 고이히 너기고 일변 잔잉히 너겨 7만이 경계할 오늘 모친이 반드시 그디로써 아이 오솔 섬기라 하시리니 천만 불평한 일을 말나 화시 사례 호읍히더니 부인이 화시를 불너 관복을 닦히라 하시니 명을 니어 나아가 관복을 밧드려 섬길시 투목으로 그 동지를 슬피니 화시 면식이 여토 할야 그 곱함과 썩을 밧매 손이 썰너 쉽디 못흔디라¹⁴⁾

③ 석파 도라간 후 상제 그옥이 보매 좌와의 불평한 빛치 밧쳤고 미우의 근심이 7득 할야 혹 함노하고 혹 희히 할야 혼 혼는 듯 근심 혼는 듯 소회 만 단이나 할거늘 날호여 문왕 부인이 우환의 빛치 근절히니 가동의 므스 일이 잇느냐 쇼제 더왈 첩의 비박지질노 귀퉁 덕업을 닦스와 일신이 평안히니 다른 혼이 업스디 스친지의로 화괴 스라디니 다른 연괴 아니”이다 상제 심니의 그 뜻을 슯치고 다시 못디 아니터라 원니 쇼제 상문 너즈로 사름 아래 되디 아났더니 일도의 소부의 드러와 화시의 능만천디함을 바드디 일양 화평한 드시 디내 공손하기를 힘쁘더니 석상의 불안한 말을 듯고 일성이 괴로 오를 슬허 줌디 못흔는 등 또흔 석파의 화시를 알면서 즈기로 인연함을 더 옥 고이히 너겨 좋아도록 울억 할야 자디 못하고 명도의 부인찌 스귀 할야 봉친함을 청히니 허락하시거늘¹⁵⁾

④ 석시 희읍업시 공티 왈 엇던 숙네 드러올디 모르거니와 두리진대 혼서를 불디라고 무함 구박 할야 출화 보기 쉬울가 두리노라……석시 손사왈……설파의 성안이 7느라디며(얼굴빛이 표연하고 엄숙한 것이 눈 위에 서리가 없힌 것 같았다) 텅파의 그 말슴이 더욱 도롱하고 노괴 미” 할을 보고 종시히 성모를 정구히 할야 낭구히 불 쓰름이러니 또흔 웃고 왈 내 평일의 부인에 형시 이대도록 사름을 죠롱함을 아디 못헛다다 다만 못느니……

14) <소현성록> 권2, 45-46.

15) <소현성록> 권2, 73-74.

참정이 데 김히 노흐야 흐믈 보고 스리로 절척고져 흐디 데 사름 되오미 구
겁디 아닐 배오 화열흐야 그릇흐와흐미 또흔 당부의 위의를 일흐미라 다만
면식을 츠게 흐고 괴운을 슈정흐야 다시 말을 아니흔대¹⁶⁾

남편 소현성이 둘째 부인인 석씨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화씨의 심리 상태에 대한 표현들을 살펴보자. 예문 ①의 경우는 ‘마음 아픔이 골수에까지 사무쳐 노한 기운이 일어났다’, ‘분을 참지 못하였으나’, ‘소매로 낫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노한 기운이 일어나 밤새 원망하며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자지 않았다’와 같이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혹은 그 결과 잠도 자지 못하는 상태를 묘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화씨가 격한 감정의 소유자이며 양양불락하여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강한 성격을 지닌 여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예문 ②에서 화씨는 ‘눈물이 저절로 솟아나니 참지 못할 정도여서’, ‘매우 서러워’, ‘감사하며 소리 높여 울었다’, ‘얼굴색이 흙빛이 되어 그 웃고름과 띠를 매는데 손이 떨려 쉽게 하지 못하였다’와 같이 슬프고 서러워하며 결국에는 자신을 억누르고 시키는 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 그 상황에서 화씨는 자신이 약자의 입장임을 잘 알지만 그러나 자신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감정에 시달리는 상태에 대한 서술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작품 안에서 이런 감정들은 ‘투기’로 규정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부인은 자신의 노기와 화, 그리고 불안감을 노정한다. 이렇게 격한 화씨에 비해 그 상황에 대처하는 소현성의 심리 상태는 ‘이미 알아보고 특별히 본체 앓고’, ‘또 본체 앓았다’와 같이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여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16) <소현성록> 권4, 15-18.

화씨가 감정에 휘둘리며 투기를 하는 입장이라면 석씨는 상황에 의해 둘째 부인이 되어야만 하는 처지이다. 지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 미모와 재주를 갖춘 여성으로 남의 둘째 부인이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석씨는 자신의 시가 외간 남자에게 전해지면서¹⁷⁾ 이를 빌미로 혼인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침착한 성품이어서 화씨처럼 격노하는 심리 상태를 보이지는 않는다. 예문 ③을 보면 그녀는 다만 ‘그 앓고 누움에 평안하지 않은 빛이 맺혔고 눈썹에 근심이 가득하’거나 ‘혹 화를 삼키고 혹 한숨 쉬어 원망하는 듯도 하고 근심하는 듯도 하니 마음속에 품은 것이 많은 듯’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내면으로, 물밑으로 다스린다¹⁸⁾. 그러나 화씨처럼 드러내지만 않았을 뿐 그 역시 부인할 수 없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이다. 게다가 ‘원래 소저는 높은 가문의 딸로 다른 사람의 아래에 처한 적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소부에 들어와 화씨의 능멸하고 천대함을 받아도 한결같이 화평한 듯이 지내고 공손하기를 힘’써야 했다. 이런 까닭에 심리적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된 그녀는 ‘밤새도록 울적하여 자지 못하’는 불면에 시달린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낮추고 감춰도 자신에게 불행이 닥치는 경험을 한 후에는 석씨의 감정 역시 공격성을 띠기도 한다. 예문 ④는 여씨의 모함으로 인해 시집에서 거의 쫓겨났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고초를 당한 후 누명을 씻고 다시 소부(蘇府)로 복귀한 석씨의 감정 상태를 보여준다. 목소리는 나직하지만 노기를 띤 채 그녀는 남편인 소현성에게 정색을 하며 따지듯 말하였다. 석씨의 이런 표현에 소현성은 자신

17) 석씨의 시를 소현성에게 전해준 인물은 석과로, 그녀에 의해 석씨는 소현성의 둘째 부인이 되었다.

18)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석씨가 순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이때의 순종은 사람이 순해서가 아니라 여성의 미덕인 부덕(婦德)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즉 자기 명예를 위한 선택인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서 순종하는 것인 만큼 실은 석씨도 화씨 못지않게 강한 성격의 소유자일 수 있다.

이 참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책망하려던 것을 참게 되는 것이다. 소현성의 이런 태도는 화씨에 대해 ‘보고도 못 본 체’로 일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위 예문들을 보면 화씨나 석씨나 화병이나 우울을 견뎌내야 하는 정황이 심리 묘사를 통해 잘 드러나 있다. <소현성록> 본전에는 이렇게 일부 다처제로 인한 상황뿐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서 비롯한 심리적 갈등 상태도 묘사된다. 이는 소현성이 의남매를 맺은 윤소저의 경우로, 실없는 한 어사의 농담으로 인해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시달리게 된 윤소저는 비구니가 되기로 자처하며 괴로워한다. 자기도 원래는 평장의 딸이므로 부모만 살아 있었다라면 남편보다 못할 것이 없다는 자의식과 회한으로 인해 그녀는 결국 상심 끝에 각혈을 하며 기절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 감정의 괴로움이 몇 쪽¹⁹⁾에 걸쳐 서술된다.

본전에 나타나는 감정 서술은 주로 여성 인물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묘사들이다. 소현성의 마음의 자리나 심리 상태, 석씨 친정아버지의 분노 등 남성 인물들의 감정 상태도 그려지기는 하나 여성 인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한 분량이다. 그리고 여성 인물들의 심리 상태에는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일부다처제로 인한 질투, 혼인과 관련한 자의식 발동, 동시에 이를 억누르려는 초자아의 작동 등이 따로 혹은 같이 작용하고 있다. 비록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는 하나 여성 인물의 솟구쳐 올라오는 감정들이 문면에 그대로 노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 주인공도 그 눈치를 살필 정도로 조용하지만 팽팽한 신경전도 묘사되며, 극적으로 표출되는 최악한 신경증에 이르기까지의 심리 상태도 드러나는 것이다. 독자들은 이 같은 심리적 긴장 상태의 추이를 바라보며 그 장면의 정황을 심

19) <소현성록> 권4, 10-13.

리적으로 간접 경험하였을 것이다.

2. 별전의 경우

별전에도 역시 형씨, 명현공주, 석부인 등 여성 인물들의 심리가 여전히 묘사되나 별전의 분량을 보면 상대적으로 남성 인물들이 전개시키는 사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본전의 경우는 소현성을 제외하고 나면 중요 등장인물들이 다 여성이었던 데 비해 별전에서는 남성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여 서사를 전개시켜 나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0권이 나 되는 별전 분량을 감안해 볼 때 남성 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적은 것은 남성 인물들이 등장하는 장면은 심리적인 묘사보다 행위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문 ①은 소운성이 형씨에게 사치한다고 문제 삼자 이에 대한 형씨의 반응이며, ②는 형씨를 투기하는 명현공주의 반응이고, ③은 명현공주의 위협에 못 이겨 친정으로 돌아온 형씨를 보고자 온 운성이 취하는 태도이다. 또 ④는 수빙소저의 초상을 본 김현이 그 여인상에 사로잡히는 장면이며, ⑤는 김현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간 수빙소저가 보이는 심리 상태이다. 이 예문들은 10권에 달하는 별전에 나타나는 심리 묘사의 다양한 경우를 보여준다.

① 형씨 텅파의 역시 정식 디 왈 첩이 불민호야 성민네의를 상헌오니 불승 슈괴호이다 연이나 첩의 칠보 다스리미 낭군의 으년 부마의 사치호 경상과 우읍기의 엇더뇨 드더여 칠보를 쫓더니 그 오지 알피 니르메 형씨 손으로 미리 나가라호니 그 아히 가디 아니호다가 업더더 우는디라 상제 부인의 불얼호 슝과 으즈를 밀티며 부마되물 도롱호물 보고 불연 대로호여 변식고 꾸지저 왈²⁰⁾

② 언미필의 수업손 시녀와 궁인이 공주를 썬 니당의 올니메 제인이 다 정식고 본 데 아니커늘 공쥬 취슈고로 뉘히 짓고 아미를 거스리며 크게 소리 달너 쭈지저 왈 석현의 썬과 양문광의 썬은 너희 등 간뵈 못 뜰 즈식을 나하 나의 일성을 그릇 밋들고 나중은 거긔말노 님군긔 하리호노 태부인이 불연 노식 왈 죄우인은 엇디 더 발부를 드러 왓노노 썬니 등미러 내티라 공쥬 대로호야 난간을 박츠며 온갓 슈육이 참혹헌디라 태부인이 크게 노호야 석부인으로 더브러 정히 처티코져 호더니 문득 승상이 제즈를 더브러 드러 오거늘 공쥬 더를 보매 부긔 대발호야 더욱 고성 왈 필부 소경아 네 므스 연고로 내의 허물을 성상긔 줌소헌다 내 널노 더브러 혼 칼헌 죽으리라²¹⁾

③ 설파의 듀순의는 옥치 비최여 우음을 머금고 슈려헌 미우의는 늬" 룬 노긔 어려여 괴운이 서리긔고 쇼안이 준절호니.....싱이 다만 넘소호고 왈 이 집이 비록 상공의 부둥이나 내 가히 못 이실곳이 아니니 군부의 명으로 락야카미 아닐던디 니리가디 멋호리라 형공이 불연 노식고 쭈지저왈 그디 방즈호미 이디도록 호거니와 내 썬을 므스 일노 모시 동여 녀호라 호러 노.....참정이 어히엄시 너겨 노를 도로혀 소리를 느초와 스리로 경계호디 싱이 오디 귀밧긔 듯는디라 공과 부인이 다 노호야 안호로 드러가니 싱이 오직 시녀를 불러 형시긔 전어왈 부인이 날노빠 지아비라호고 그 나흔 바 즈식을 운성의 즈식이라 호거든 썬니 나와 서러 보라 형시 듯고 노왈 사름 겁딴호야 옥호미 이 곳타나.....부친이 썬호 권호니 형시 강잉호야 나와 소 싱을 보매 오직 안식의 노긔 그득호야 곱오디 내 비록 무상호나 부인이 엇 디 이디도록 박디호노노 키히 으즈를 내어오라 니 반드시 처즈를 다 죽이고 도로 즈문호야 므움을 곁호리라 설파의 옷스이로서 전광긔튼 보검을 썬허 상머리의 노코 눈을 부릅쓰니 문득 빅면셔싱이 변호야 위풍이 풍둥의 멩호 곳타니²²⁾

20) <소현성록> 권9, 43.

21) <소현성록> 권8, 65-66.

22) <소현성록> 권8, 9-12.

④ 성녀의 이 녀즈를 었디 못하고 가인을 느민 손의아 일던데 었디 용널
티 아니리오 이리툃 브절 업슨 녀너를 허비허야 동강의 북과 원촌의 계성도
출혀 듯디 못하고 동인 드시 안자 싱각다가 홀연 눈을 드러보니 축이 벌서
꺼뎃고 동망이 별가시니²³⁾

⑤ 취시 여어보고 창밧기서 일당을 내러허야 성을 대들허고 쇼저를 욱허
니 성은 남지오 허물며 취시를 두려홀 배 아니로디 쇼제 심동의 크게 불안
허고 괴로와 그전 두신세를 싱각고 밤이 못즈록 읍양허야 봉벼개를 즈막고
흔 즈을 일우디 못허니……쇼제 성의 위로허물 보매 므음이 더욱 너도허고
심두의 혼이 그득허던 모친의 그르치물 싱각고 정신을 강잉허야 날이 새물
기드려 쇼세를 파허고 왕부인찌 문안허니 위시 취시 등이 다 모뎃더라²⁴⁾

이 예문들은 별전에 나오는 감정 서술 중 비교적 자세한 부분을 뽑은 것인데 앞에 제시된 본전의 예문과 비교해 볼 때 별전의 감정 서술은 행동 양상은 과격해진 반면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 사용은 상대적으로 소략해졌음을 알 수 있다. ①에서 형씨는 ‘정색하며’ 아이를 밀어 나가라고 하고, ②의 명현공주는 난간을 박차며 욱한다. 이 격렬한 과정에서 행위가 아닌 감정 상태만을 드러내는 어휘는 ‘화가 나’ 정도이다. ③은 ‘노기’, ‘냉소’ 등의 반복 사용으로 운성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지만 묘사가 자세하지는 않다. 오히려 처자를 다 죽이고 자신도 자결하겠다는 시퍼런 칼을 내놓는 장면이 더 인상적으로 전달된다. 이에 비해 ④, ⑤의 경우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분량도 어느 정도 되는 예들이다. ④에서는 수빙 소저의 초상을 본 김현의 내면 독백이 제시되면서 그가 아름다운 여인상에 사로잡혀 정신이 멍해지는 상태가 비교적 잘 묘사되어 있고, ⑤는 김

23) <소현성록> 권12, 105-106.

24) <소현성록> 권 12, 132-134.

현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간 수빙소저가 분노, 서글픔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겪으면서 보여주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²⁵⁾.

이 예문들은 별전에 나오는 감정 서술 중 비교적 자세한 부분을 뽑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전에 비해 감정의 밀도가 약해졌다. 별전의 경우는 소현성의 아들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사건 역시 처처 갈등만이 아니라 부부 갈등, 요괴 퇴치담, 전쟁담, 음해담 등으로 다양화되었고, 이에 따라 남성 인물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언급을 할 기회가 많아질 수도 있었을 터인데 막상 문면을 보면 심리 묘사보다는 행위 서술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까닭은 앞에서 열거한 모든 사건들이 남성 인물의 감정적인 기복 상태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기에 별전의 경우는 감정 서술보다는 사건 자체에 대한 서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서이다.

뿐만 아니라 본전에 비해 별전의 감정 서술 양상이 달라지는 것은 소현성이 어머니인 양부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면 서술에서도 확인된다. 해당 부분의 예문은 아래와 같다.

향년이 일백십오세라 소부인과 화석이 제즈제손을 더브러 투흔흐야 발상
흐니 곡성이 하늘의 뵈이고 승상이 두어 소리롤 올고 혼절흐야 업디디니 제
지 경황흐야 급히 약을 치며 브르디져 췌오니 한상제 드리와 붓드러 통곡흐
며 티상홀시 소공이 정신을 계유 출혀 일당 호곡혼 후 우름을 그티고 제즈
제손으로 더브러 상슈를 다 친히 보며 잡드러 반합습념의 운경 운성을 드리
고 입관흐고 성빙흐야 초상을 마츠매 일을 다스리물 심분정숙히 흐야 부란
흔 일이 업고 밧긔 나가 도각을 보디 아니흐며 입관 이전은 신테를 덕희여
방 밧쓸 나디 아니흐고 곡음을 때로 흐여 지리히 우디 아니코 다만 시신을

25) 별전의 감정 서술 양상을 감안해 볼 때, 예문 ④, ⑤와 같은 심리 묘사는 오히려 드문 편에 속한다. 그러나 별전에도 이 같은 서술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소수이지만 감정 서술의 예문에 포함시켜 제시한다.

붓드려 상시 뽀심가티 전혀 곡읍이 과도티 아니” 제지 것거히더니 밋 성복
을 일으고 소공이 기리 혼 소리를 디르고 입으로조차 피 두어 말을 토하고
혼미히야 인스를 모로니 제즈계손 망극히여 아머리 혼 줄을 모르더니 반향
후 승상이 인스를 출혀 보야호로 상복을 츠자 님고 상막의 업더여 도직을
바드나……소공이 도직을 더접흔 결을의는 빙탕을 디회여 보야호로 듀야를
아디 못히고 호곡으로 날을 믹츄디 성음이 쇠티 아니코 곳치디” 아냐 날이
오랄스록 것거디고 띄여디는 듯히야 눈물이 오시 찌러디면 녀”이 피 되고
물도 마시디 아니니 소화석 삼부인이 호턴망극 등 승상의 과훼흔를 보
매……대고의 다드라 쇠훼골입히야 풍용이 환탈히고 그뷔 쇼삭히야 정신이
모순히며 움죽이매 사람의게 붓들녀 계유 흥보를 일으고 헛비출 드토던 안
침 변히여 정괴 업스니 인비토목이라 토혈을 만히 하고 물도 마시디 아니며
패티 아니리오 줄곡을 디내고 인히야 병이 등히니 턴지 니시를 보내여 육즙
을 권히시나 소공이 듯디 아니히고 고통히되 스시참제를 게어르디 아니히
며 병이 위티히야 사디 못히기 되디 믹츄내 상복을 벗고 눕디 아니히더니
명이 딴히는 날 모욕즈계히고 녀연의 드러가 크게 울고 부친 스당의 허비흔
후 너당의 드러와 취성던을 둘러보고 안슈 비 오듯 히여 곱오디²⁶⁾

양부인이 115세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소현성은 지나치게 슬퍼한 나머지 삼년상도 마치기 전에 죽게 된다. 슬픔이 지나쳐 죽기에 이르렀다면 얼마나 슬펐는지를 묘사하는 데 공을 들일 법도 한데 위 예문을 보면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로 슬픈 심정을 묘사하기보다는 장례 절차에 따른 예법을 얼마나 지극하게 지켰는가를 서술하는 데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곡성이 하늘을 찌르고’, ‘울고 혼절하여 쓰러지고’, ‘피부가 마르고 정신이 상하며’, ‘안색이 변하는’ 등 슬픔으로 인한 변화도 서술되기는 하지만, 이 예문에는 감정 자체 묘사가 아니라 ‘피를 두어 말이나 토하고’,

26) <소현성록> 권15, 57-59. 61-62.

‘눈물이 옷에 떨어지면 점점이 피 되고’, ‘토혈을 많이 하고’ 등의 행위를 통해 그 슬픔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못지않게 ‘초혼하여 발상’하고, ‘반합하고 염하’고, ‘입관하고 빈소를 차려 초상을 마’치고, 입관 이전에는 예를 갖춰 방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곡읍을 때 맞춰 하고, 상막에서 조문객을 받고, 그 여가에는 밤낮으로 빈소를 지키고, 졸곡을 지내고 병이 드는 등 예법에 대한 서술이 강화된다.

이같이 별전의 감정 서술은 심리 묘사와 관련한 어휘는 그 사용 빈도가 적어지고 심리 상태로 인해 유발되는 행동 양상 서술이 두드러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의 지극함을 표현하기 위해 감정 관련 어휘가 아니라 관련 예법의 준행 여부를 열심히 서술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3. <소현성록> 심리 묘사의 특징

앞의 예문들을 통해 검토했듯 <소현성록>의 심리 상태 묘사는 본전의 서술 방식과 별전의 서술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감정 서술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본전과 별전이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본전과 별전에서 다루는 사건의 성격이 변화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소현성록> 본전은 주로 혼인 양상으로 서사를 전개시키는데, 혼인을 둘러싼 관계 양상 자체가 사건의 중심이므로 보여줄 수 있는 서사 세계에 제한이 있다. 또한 일상적인 소재들을 다루므로 사건의 성격도 단조로우며, 그 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은 음전한 여성, 투기하지 않는 여성, 가부장제 기획에 잘 훈육된 여성 등의 이념적 덕목들이다. 그러나 그 주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본전의 서사는 혼인을 둘러싼 사랑과 질투의 감정에 대한 서술을 서사의 본류로 끌어들었다. 그 결과 감정 서술 자체가 서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투기를 금기시하기 위한 포석으로

질투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화씨를 등장시켰으나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길복을 지을 수밖에 없는 화씨에 대한 장면은 가부장제 하의 여성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기질은 강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뜻을 꺾을 수밖에 없는 화씨에 대한 묘사는 동정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녀의 숨구쳐 올라오는 질투의 감정을 이해할 만한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²⁷⁾. 뿐만 아니라 석소저를 보면 혼인 전 자신이 누리던 지위와 혼인 후에 달라진 자신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여성 현실이 드러난다. 여성 인물의 경우는 혼인 전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집 생활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⁸⁾. 이 같은 본전의 심리 상태는 일부다처제 하의 여성 현실을 드러내어 꺾인함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에 비해 별전은 남녀 결연 및 혼인의 문제도 다루지만 운성의 영웅성을 부각시키는 사건들이 많아진다. 별전에는 본전의 서사와는 결을 달리하여 갑자기 요괴 퇴치담이 등장하거나 적군의 여장군과 한판 힘 겨루기를 하는 에피소드들도 삽입되며, 남녀 결연의 경우도 정식 혼인만이 아니라 강간혼 형태, 남장 여자와의 교유 관계 맺기²⁹⁾ 등으로 다양하게 구

27) 그러나 같은 투기의 감정이라고 해도 현실적인 맥락에서 멀어진 여씨의 경우는 심리 상태 묘사보다는 행위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룬다. 즉 개용단을 마련하고 사용하는 행위, 진가(眞假)를 구별하기 위해 상대 인물을 철퇴로 내려치는 행위 등 물리적인 행동에 대한 서술이 활발해진다.

28) 남성들의 수신서는 군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데 비해 『여사서』와 같은 여성 훈육서들은 여성이 혼인을 계기로 하여 친정에서의 딸이자 시누이의 정체성에서 시집에서의 며느리이자 올케 및 동서로 그 정체성을 잘 바꾸어 나가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9) 본전의 경우도 소현성이 타지에서 궁지에 처한 여성을 만나 구해주는 경우가 두 번 등장한다. 그런데 군자를 지향하는 소현성은 두 번 다 그녀들과 외남매를 맺어 자신이 중매의 소임을 맡는다. 이에 비해 별전의 소운성과 소운명은 자신의 성적 욕망에 충실한 남성으로 형상화된다. 운성의 경우는 자신의 팔뚝에 찍힌 잉혈을 지우기 위해 소영을 겁탈하며, 형씨를 보자마자 반하여 상사병에 걸릴 지경에 이르고 결국 혼인에 성공한다. 운명의 경우는 남장을 한 이소저에게 친밀한 감정을 느끼다가 그 인물이

성되어 있다. 즉 별전은 고소설의 장르 관습들을 적극적으로 원용하여 서사를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사건이 역동적으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서사는, 섬세하고 정적이며 때로는 비가시적이기도 한 감정 서술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남성 인물들의 집 밖 행위들로 서사가 전개되는 별전에서 여성들의 심리적 갈등, 자의식의 문제 등은 더 이상 다루어지지 않는다. 또 비록 정치되기는 했지만 본전에서는 교영이라는 여성이 성적 욕망의 주체로 그려졌다. 그러나 별전의 경우, 성적으로 방종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남성 인물들은 등장하지만 성적인 욕망을 지닌 여성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 작품의 감정 서술을 보면 여성 인물들이 개성 있게 그려지는 것은 별전보다는 본전의 경우라고 하겠다.

Ⅲ. 외모 묘사와 가치의 문제 : 외모 서술의 경우

1. 본전의 경우

<소현성록>에는 유난히도 외모에 대한 묘사가 많은데 본전의 경우는 그것이 더 두드러진다. 물론 본전의 경우도 외모를 거론하면서 재주와 지혜 등 다른 긍정적 자질을 같이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양부인은 화씨의 인물됨을 중시하고 얼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³⁰⁾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전을 보면 인물들을 거론할 때 다른 자질에 대한 언급 없이 얼굴

남장 여성임을 알게 된 후 혼인을 이루기 위해 온갖 노력을 불사한다. 또 별전 후반부에 등장하는 김현 역시 수빙소저의 초상화를 보고는 상사병에 걸린다. <소현성록> 별전의 경우는 남성 인물들의 상사(相思)의 과잉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여성 인물들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기에 여성들의 욕망은 알 수가 없다.

30) “나는 다만 화씨의 인물됨을 중시하고 얼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소현성록> 권1, 36.

생김새 자체에 대한 서술 분량이 상당하며, 얼굴과 더불어 풍채, 골격 등 외모의 전체적 윤곽, 분위기 등이 서술되기도 한다. 또 화씨의 경우는 위낙 빼어난 미모는 아닌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 얼굴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 결코 미모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는 없겠다. 예문들이 좀 길지만 묘사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대로 인용할 필요가 있겠다.

① 현아흔 풍채와 쇼쇄흔 골격이 일월정기를 머뜨러는디라 신뵈 이에 들
매 일눈 명월 췌기는 신낭만 못흐고 다만 정치 초강흐야 물근 별 췌트니 명
월과 성신의 명광이 었디 니도티 아니리오 둥빈이 입으로 위자흐야 삼덕흐
를 칭하흐나 심등의 각각 신낭을 앓기고 월영이 풍용흔 용피 만좌의 독보흐
던 소싱의게 드르매 오히려 췌던 고디 만흐니 인인이 도로혀 남즈의 너모
고오를 고이히 너기고 당원티 못홀가 의심흐야 다 하례 왓³¹⁾

② 양부인 당녀 월영이 당성흐야 십삼의 니르니 골격이 쇠락흐고 안팎이
윤탁흐야 창희에 명췌 소스며 낙일이 약목의 날닌듯 거울 췌튼 눈희와 원산
췌튼 아미와 유헌정당흔 기질이 추상 췌트되 화려상활흐여 지녀가인의 기
상이 만터라³²⁾

③ 석시 석파로 더브러 나아오매 설익은 춘 들 췌고 아미는 비들 췌트며
츄파명목은 덩 ” 흐야 효성의 정기를 췌엿고 낭협은 도해 조로를 비왓는듯
불근 입은 단사를 췌흐야 밧그로 고운 거슬 자랑흐고 초옥을 갓근 듯흔 현
니는 안흐로 형영흐야 고오를 비양커늘 광유헌 귀 밧티 기류 방턱을 허비티
아나셔 흐른는 빗치 거울 췌고 봉익초요로 금년을 가브야이 유키매 영 ”
단 ” 흐야 만신의 수식을 호츄흐니 흥츄상을 쓰으고 금사삼을 붓치며 칠보

31) <소현성록> 권1, 49.

32) <소현성록> 권1, 17.

션 드러 난간의 오름매 신향은 년향을 퇴하고 광치는 춤치하야 죄우의 도림
하니 운예를 끌고 태양을 더하며 희야의 명조를 비취 굿터여 슈려쇼쇄하미
비길 곳 업는다라 근시인이 눈을 보와 칭복하고 화녀 낭인이 여취여티하야
반향이 디나매 화시 비락소 곶오디³³⁾

④ 네 위쇼 부인이 다 괴환명부로 봉관을 수기고 슈상을 붓쳐 난간의 버
러시니 아름다운 얼굴이 서르 빛최디 오직 특출흔 자는 윤석 이 인이라 청
월 소담하며 자약 쇠락하여 요디금당의 부용긋거늘 소시의 초월흔 거도와
품염 잘난흔 풍치 게화일지 춘빙의 빛최고³³⁾ 33) 초월이 운니의 내왔는듯 준일
소쇄하여 비컨대 일도난봉이 기산의 안젓는듯 하니 화시 잠간 쩌디미 이시
나 또한 하등이 아니라 바라보매 경복 흠모하물 이기디 못하야³⁴⁾

⑤ 스위 부인이 다 청춘 쇼년으로 식모 지혜 일세에 특출흔디라 단장의
사려흔 거슬 구티 아니하야 혼 가지 복식으로 흥상을 쓰이고 취삼을 썰티며
패옥을 드리우고 봉관을 정히하야 직석의 버러시니 신당이 층등티 아니하
고 용관이 상하티 못하야 부용긋튼 얼굴과 새 별긋튼 눈찌며 원산긋튼 아미
와 일순 년힘이 암실이 붉는 듯 봉익뉴요는 표 "아" 하야 던속의 썩여나고
교 "옥성은 버들 스이에 물계 우는 황잉이오 쇠락흔 골격과 석" 한 위의 혼
갓 사름으로 하염곰 스랑하을 분 아니라 공경하는 습기 잇는다라 만췌 아득
히 칭찬하야 주식을 낮고 완경하며 석부인을 보매는 정신이 어리고 괴운이
저상하니 이 때 쇼년 빙직 수천여 인이 버러 절식이 수풀긋터디 소유석 삼
인이 옥슈의 잠은 바 칠보셔을 기우리고 둥인이 송둥을 향하야 흥순옥치를
윤죽여 말숨을 임우매 향기로운 바람이 니러 나고 빅티 만광이 누출하니 분
디 의상품과 지분을 얹히 너기는 절식이 이에 들매 탈거하야 비컨대 금분의
흥빅 부용이 성히 피여 이슬을 머금어 도양의 썰턴 듯한 것티 디는 두견화
로 곶와 이십 굿터니³⁵⁾

33) <소현성록> 권2, 92.

34) <소현성록> 권4, 42.

⑥ 년괴 오십이 다니시디 반분도 쇠희미 업서 일발이 불빅히고 용피 풍영
 혀야 비컨대 호워흔 흥년화와 성흔 빅모란이라도 표담 호워흔들 밋디 못홀
 디라 율턱흔든 희둥구슬 꺾고 쇠락흔 풍피 텃둥섬궁 꺾터여 구름 꺾튼 귀밧
 과 빅설 꺾튼 괴희의 심컨대 비견히리 업솔디라 비록 스위 쇼부인이 싸히나
 나 그 무중한 광치와 7업슨 호워흔매는 찌디미 이시니 석부인이 홀로 존고
 띄 느리디 아니디 다만 석시는 쇼년이라 자약하고 뇨라정당 혀야 경영흔 즈
 턱 이시미나 그 몹고 어리로오며 풍완흔매는 일분이나 밋디 못홀듯 하니 혼
 갓 풍피 이갓털 분 아니라 동지위의 즈연히 법피 이셔 혼 번 움죽이매 난봉
 이 벽오의 우러는 듯 팀정단좌흔매 놓이 여희쥬를 희롱흔는 듯 멀근 눈을
 혼 번 기우려 사롬을 슬피매 즈연 사롬리 경황혀야 제 몸을 도라보와 국축
 혼 면모를 정히 혀야 향인더긱홀 시 듀 숲을 여러 유희흔 소리와 덩속 흐르
 는 듯 혼 말숨을 발호매 화괴 춘풍이 온화혀야 빅물이 싱괴를 돕는 듯 혼업
 슌 동지 위업이 혼갓 얼골 급기의 십비나 더으니 이야 진짓 너둥 군왕이라
 의복이 무쇠희미 심히니 더욱 그 용피 | 발월혀야 구름 스이 엿보는 들 꺾
 디라³⁶⁾

예문 ②는 월영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이고 ③은 석씨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이며, ④과 ⑤는 소부의 네 여인, 즉 화부인, 석부인, 소부인, 윤부인의 외모에 대한 묘사이다. ③의 묘사에 의하면 석씨의 아름다움은 독보적인 것이고, ④를 보면 그 네 명 중 ‘화씨가 조금 떨어지나 하급은 아’ 니라는 언급이 있다. 인물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본전에 나타난 외모 묘사 중 얼굴에 관한 표현을 들어 보자면, ‘맑은 별’ 같은 눈동자 빛/샨별 같은 눈길, ‘눈처럼 흰 이마’, ‘머들’ 같은 눈썹/먼 산 같은 눈썹, ‘붉은 입술/앵두 같은 입술’, ‘옥을 깎은 듯한 흰 이’, ‘윤기 나는 귀밑머리’, ‘연꽃 같은 얼굴’ 등이 주로 중복되며, 신체에

35) <소현성록> 권4, 55-56.

36) <소현성록> 권4, 57-58.

대해서는 ‘봉황 날개 같은 두 팔’, ‘가는 허리/머들 같은 허리’ 등이 사용된다. 또 ‘풍채’는 ‘반듯하고 우아하’거나 ‘찬란하’고, ‘골격’은 깔끔하고 ‘위의’가 당당해 보이는 것으로 표현한다. 위에 제시한 예문을 보면, 본전 외모 묘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얼굴 묘사이고, 골격이나 자세 등 전체 분위기에 대해 잠깐 언급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외모 묘사를 돋워 주는 것이 바로 복식, 치장에 대한 묘사이다. ‘붉은 비단 치마’, ‘금실 수놓은 적삼’, ‘봉관’, ‘칠보(혹은 진주) 장식 부채’ 등이 여기에 속하는 표현들이다.

그런데 미모에 대한 본전의 관심은 젊은 여성 인물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①은 바로 소현성에 대한 묘사이다. 소위 군자를 지향하는 소현성의 자세는 신부 화부인보다도 고왔으며, 그 자리에서 독보적인 아름다움으로 꼽힐 만한 누이 월영보다도 뛰어난 것으로 그려져 있다. 그런데 ②의 예문을 보면 월영의 외모 역시 ‘화려하고도 시원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남자라면 도대체 소현성의 외모가 어느 정도로 고왔는지 궁금하다. <소현성록>은 남성을 묘사할 때에도 이렇듯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으며, 골격의 느낌도 크고 건장한 것이 아니라 매우 여성적인 신체로 묘사하기도 한다³⁷⁾. 게다가 ⑥는 원이 넘은 양부인에 대한 묘사이다. 물론 나이가 있으므로 젊은 부인들을 묘사할 때와는 달리 가는 허리 대신 ‘용모가 풍성하고 넉넉해 보’였다든지 혹은 ‘머리

37) 남성 인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은 별전에서조차 나타난다. 별전 중 전쟁터에 출전한 소운성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완전 전투 복장을 갖춘 후에 드러나는 그의 모습은 희고 아름다운 얼굴에 가늘고 날랜 어깨 선을 지닌 소년 장군의 자세이다. “하 그의 일원 대장이 머리의 비, 시투를 쓰고 몸의는 황금 갑의 빙화수전표를 꺼넣고 옥피를 찌고 좌하의 경총 만니운을 터며 손의 칠성검을 드리고 문과 그림재 나오니 미목이 청월호야 비옥을 갖근 듯하고 양안 추파는 새박별이 동호는 듯 단순 호치 위연이 절디 미인이오 가는 허리와 놀단 엇게 봉황이 나는 듯 표연이 텃신이라”, <소현성록> 권11, 38-39.

카락이 하나도 희지 않았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된 묘사가 이루어 지기는 한다. 그러나 '탐스러운 붉은 연꽃', '활짝 핀 모란', '구름 같은 귀 밑머리', '흰 눈 같은 피부' 등 풍성함과 광채 그리고 윤기를 강조하는 표현들도 사용된다. <소현성록> 본전은 이와 같이 노년을 바라보는 여성 인물에게도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2. 별전의 경우

별전 역시 외모를 묘사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별전에서의 외모 묘사가 본전의 외모 묘사와 전혀 다른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본전이 뛰어난 미모 그 자체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루었던 것에 비해 별전은 그 서술 분량이 줄어들거나 본전과는 다른 표현 방식을 동원한다. 그런가 하면 외모만이 아니라 다른 긍정적인 자질을 함께 서술하거나 또는 외모 서술만이 아니라 풍정(風情)이 함께 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

① 공지 스스로 브어 스오 비의 니르러는 쥬량이 적으므로 만취하니 옥편의 흥광이 더욱 아름답더라 위시 몸이 침상의 안근듯 혀야 감히 눈을 드러 보디 못히고 공즈는 취안을 즈로 드러 위쇼저를 보니 촉하의 티되 더욱 괴이 혀야 비옥 그튼 얼굴의 년화그튼 즈티를 머물렀고 양순호치와 녹미성안이 옥을 사겨 치식을 메운듯 풍치 은아히고 거지 한가로와 텃연히 선원이질이 오 희상명쥬그튼디라 공지 평성 절식을 보아 눈이 고산 그튼되 위시를 디히 매는 즈연 칭찬히고 스랑호물 씨듯디 못히니 몸이 니는 줄을 몰라 니아가 겨티 안즈며 그 스매를 인혀야 손을 잡고 풀홀 어르문져 닐오디 위형을 보니 벽벽이 선지 하강호얏느니 의심컨대 남즈는 이러티 아니리니 반드시 너지 기장호미로디³⁸⁾

38) <소현성록> 권5, 32-33.

② 소승상 이즈 윤희는 즈는 즈강이라 우인이 영오하고 성되 민첩하야 모친 품기 만하니 이 곳 화부인 소성이라 년과 십오세의 나르니 얼굴이 삼식도혜 춘빙의 비천듯 문지 투월하야 붓 아래 주옥이 썩러디니³⁹⁾

③ 이제 년세 십스 세에 다다라 신당이 팔척오촌이오 허리 살대 낫고 잇게 치방 7타며 두 풀이 무릅히 디나며 힘은 능히 구덩을 들고 모락은 손오의 디나며 용땀은 파목의 넘고 문장지혜 태스선의 7작이 빵을 흘 거시오 성정이 총명하야 사람의 소리를 조차 그 속을 알고 그 얼굴을 조차 그 모습 을 스뭇초 저근 일의 프리디고 큰 일의 강녕지단이 잇고 의논이 상쾌하며 언에 호상하되 모습이 털석7타야 쓰들 덩헌 후는 두루 혀디 안냐 브디 모습을 세오니 아 가운데 고집이 극하고 쓰흔 풍용이 쇠락하야 금분의 성흔 모란 7고 괴되 편턴하야 세뤼 미풍의 움죽이는데 흠 빵 불근 눈은 효성의 정귀를 감초와 고두조각 주순은 단사를 덩텃는듯 낭미는 강산의 슈귀를 모 도왔고 귀밧튼 옥을 다스린듯 하야 의 "히 모친 염타를 품슈하고 표" 히 부친의 여풍을 어더는디라⁴⁰⁾

④ 다만 아룸답기의 버서날 뿐 아니라 극히 흉하니 제인이 혼 번 브리보 매 문득 놀나온디라 늦치 누로고 거으며 크7 장적고 허리 퍼디며 어리고 락사 형용이 고이홀 뿐 아니라 나사치 큰 후이 세히나 좌우로 드리위시니 가히 무염의 디난 박식이라⁴¹⁾

⑤ 모든 눈이 혼가지로 광경홀시 신뵈 이목 스이에 나타난 정신이 쥬슈의 밧난 거슬 나모라 하며 설부화뵈 옥을 공교히 사겨 치식을 메운듯 낭목은 강산의 뭍은 것과 아미의 그린듯 혼 스월미오 니마는 반월이 텅턴의 밧것고 빵환은 쇼디 구름이며 호워 소담흔 두 귀밧튼 흥년화를 고갯는듯 어리로온

39) <소현성록> 권5, 54.

40) <소현성록> 권5, 62-63.

41) <소현성록> 권9, 87.

그질은 양비의 어리로오름 점득 하얗고 잉순옥치는 단사의 어름 그터며 낡
협은 무릉삼석되 이슬을 썰던듯 참난흔 풍치 추월이 탁운을 버스며 남던빅
벽이 듯글을 시순듯 신상의 일천풍치 완전하고 안모의 우치 어른거려 일광
을 그리오니 만일 석부인 곳 아니면 디적허리 업술디라⁴²⁾

⑥ 쇼영을 일회당의 두고 므릇 단장과 의복을 티세 하야 식으로 도으니 영
이 본디 그질이 출뉴흔디라 용되 날노 슈려 하야 월궁 흥아와 무산 선너긔터
라……제인이 명을 니어 못그의 비회하니 요디 선네 모닷는 듯하고 등 형시
의 헤힐흔 그질과 표현흔 풍치며 윤택흔 광영이 비길 곳 업서 쇼년 가운데
특출하고 부용의 고운 식을 더러이 너기는데 쇼영이 성장을 일으고 뒤히 피
서서니 즈틴 청아하고 품질이 소담 하야 일호도 녹” 혼 터되 업스니⁴³⁾

⑦ 둘 그터된 광치 암실의 조요하고 자약흔 그질은 계화 일지상풍을 띄엿는
듯 물근 풍도는 명췌 창희에 소사 청빙의 노혔는 듯 윤택흔 광염은 목난이
동풍을 마즈며 소담하고 향기로오문 옥년 혼 줄기 녹라의 반개 하야 소사는
듯 화용이 아” 하고 그질은 노도 하야 비길 고디 업스니 다만 바라보매 타향
이 함디의 모욕곰아 부상의 오르며 섬월이 약목의 느리는 듯하니 눈이 바의
고 정신이 황홀 하야 전일 그림을 생각하매 미록 당단 영모는 춤치 업스나
녕농 쇠락흔 광치는 빅비나 승흔디라⁴⁴⁾

⑧ 용안은 부용해 이춤이슬을 머금어 모양의 썰티는 듯 허리는 춘풍의 뉴
지 그고 일쌍 그 명목은 춘일효성이 덩슈의 비천 듯 눈 갓튼 슬빛과 잉도
긔터된 주순의 호치빙옥 그고……물근 눈을 한번 두로면 일만사름을 안동의
두실 듯하며 사름을 하여금 두려온 모습 이 스스로 발키하시니 모든 오라비
와 형들이 감히 희언과 담쇼를 가바야이 붓치디 못허터라⁴⁵⁾

42) <소현성록> 권5, 75-76.

43) <소현성록> 권9, 57.

44) <소현성록> 권 12, 125-126.

①의 예문은 소운경이 남장(男裝)을 한 정혼녀 위소저를 만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상대방의 외모를 관찰하던 운경은 그 미모를 보면서 상대방이 여성임을 금방 알아보고 술이 약간 오른 분위기 속에 위소저의 손을 잡는다. 이 예문을 보면, 술이 약간 들어가면서 남녀의 풍정이 일어나는 분위기 묘사가 주를 이루고 외모 묘사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역시 성적인 충동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런데 본전에서는 이렇듯 이성의 외모가 묘사된 후 곧 신체 접촉으로 연결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②는 소운회에 대한 서술인데, 외모에 대한 묘사가 추상적이며 간단할 뿐만 아니라 외모만이 아니라 문재(文才)가 더불어 언급되고 있다. 그 후에 등장하는 운성의 경우⁴⁶⁾는 외모에 대해서는 묘사하지 않은 채 그의 기질에 대한 서술에 상당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즉 이들 인물을 묘사할 때는 외모에 대한 비중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③은 이 같이 외모 묘사가 생략되었던 소운성에 대한 외모 묘사가 등장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묘사는 주로 큰 키, 탄력 있고 강한 허리, 힘, 용맹, 문장, 총명, 호탕함, 고집 등 전형적인 남성성을 강조하는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눈, 입술, 눈썹, 귀밑머리 등 얼굴에 대한 묘사는 그 비중이 매우 적다. 본전에서 소현성을 묘사했던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별전에서는 남성 인물을 묘사하는 방식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⁴⁷⁾. ④ 역시

45) <소현성록>, 권14, 3-4.

46) 해당 부분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승상의 데 삼즈 운성의 즈는 텃강이니 그 모친이 썸의 삼티를 숨기고 아들을 나흐니 고로 별성즈로 운즈를 지은디라 나히 소오 세의 니르더 글을 비호디 아나 부뵈 ㄹ라친죽 입을 여디 아니코 부친이 최훈죽 공순이 바드되 모친 석시 티려 시너를 멩혀여 잡아오라 흐면 문득 ㄹ라나 조모찌 수므니 시네 감히 하슈티 못흐고 태부인은 그 두려 숨는가 흐야 썸흔 말려 티디 못흐고 흐는디라 공지 더욱 방즈흐야 팔세에 니르도록 흐 즈 글을 아디 못흐고 권혹디 아니 〃 사람이 다 고이히 너기더라”, <소현성록> 권5, 55-56.

47) 각주 37에도 소운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때도 그냥 미모만 묘사하

외모에 대한 별전 서술의 태도를 짐작하게 하는 예이다. ④는 소운명의 첫째 부인인 임부인의 외모에 대한 묘사인데, <소현성록>에서 유일하게 추모로 묘사된 인물이다. 본전의 경우는 미모가 곧 가치로 간주되는데, 별전의 임부인은 추모이지만 그녀가 지닌 덕으로 인해 집안에서 자신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④의 예문은 미모와 가치, 색(色)과 덕(德)이 분리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⑤는 혼인날 신부 단장을 한 형소저에 대한 묘사이다. 별전에도 이같이 인물의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묘사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같이 외모를 서술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⑥과 ⑦ 같은 방식이 더 빈번하다. ⑥은 한껏 꾸민 소영이 등장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한껏 꾸몄다고 해 놓고 막상 소영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 용모가 날로 수려해서 월궁 항아와 무산 선녀’ 같다고 비유하고는 ‘성장(盛粧)을 한 자태가 청아하고 소담하여 녹록치 않다’는 설명적인 진술만 보인다. ⑦의 경우는 혼인날 수빙소저에 대한 묘사인데, 구체적인 묘사가 아니라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수빙소저는 바로 김현이 그 초상화를 한번 보고는 완전히 사로잡혀 상사병에 이르도록 한 인물이라는 점을 환기해 본다면 이 같은 서술은 수빙소저의 외모를 실감나게 묘사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하겠다. ⑧은 소수주에 대한 묘사로, 그녀는 훗날 선인황후가 되는 인물이다. 이 인물에 대한 묘사에는 단지 미모가 강조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경외감을 갖게 하는 위엄이 더불어 서술된다. 뿐만 아니라 여훈(女訓)이나 여성 행장에서 강조하는 덕목에 따라 그 성격을 형상화하는 서술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위의 예들을 종합해 보면, <소현성록> 별전 외모 서술의 특징으로는

는 것이 아니라 감주를 갖춰 입은 장군의 투구 사이로 드러나는 미모이다. 즉 고운 모습만이 아니라 남성적인 면모와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함께 서술되어 있다.

외모의 아름다움이 성적인 충동과 연결되거나, 외모 서술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긍정적인 자질과 더불어 서술되거나, 남성 인물에 대한 묘사가 남성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모가 미모 못지않게 그려지며, 설명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들도 등장함을 알 수 있다. 별전의 이런 외모 서술 방식들은 본전의 외모 서술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3. <소현성록> 외모 묘사의 특징

앞에서 확인했듯 본전의 외모 묘사는 남녀 공히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외모 서술의 비중을 보아도 얼굴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데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한다. 또 오늘날의 통념과는 달리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남성 인물은 그 어떤 여성 인물들보다도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곧 외모가 가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물론 본전에서 미모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이다. 이는 고전소설의 경우 흔히 주인공은 선남선녀로, 그 상대역이자 악인형 인물들은 추한 외모로 설정되는 것과는 상통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현성록> 본전의 경우처럼 여성 인물은 물론이고 남성 인물조차도 빼어난 미모를 지닌 경우는 찾아보기 드물며, 그들의 미모에 대해 장면마다 반복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경우도 드물다. 뿐만 아니라 별전의 경우도 별전의 주인공 격인 소운성의 경우, 그 얼굴 생김은 여전히 미모임에 분명하다. 소운성은 남성적인 미감과 여성적인 미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듯 <소현성록>에 나타난 얼굴 묘사를 보면 이 작품은 부드러운 선(線),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소현성록>의 창작 시기를 17세기로 추정하는데,

외모에 대한 17세기 당대의 관심을 알려주는 기록이 있어 연관 지어 살펴볼 만하다. 이는 송시열의 일화⁴⁸⁾로, 이 기록에 의하면 궁중의 비빈을 간택할 때에 덕(德)이 아닌 색(色), 즉 외모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으며, 송시열은 이런 관행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주장하였다. 이처럼 여성을 판단할 때 색과 덕의 가치 판단 문제를 소설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소현성록> 별전의 외모 서술이다. 본전이 뛰어난 미모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면 별전의 외모 묘사에서는 조선시대 유교 이념의 검열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즉 미모가 가치와 등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미모도 중요하다는 정도의 입장이 되며, 임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모임에도 집안의 권력을 획득하고 있다. 추와 가치와 결부되는 인물도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추녀인 임씨를 아내로 맞이한 소운명이 겪는 갈등이 그려지고는 있으나 박색이 긍정적인 인물로 설정된 별전은 본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념화된 양상을 보인다. 별전에서는 여성의 외모에 대하여 색과 덕이라는 유교적 사고 체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시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색/덕에 대한 이 같은 별전의 서술 태도는 당대 남성들의 허위의식을 감추는 것이기도 하다. 색과 덕의 문제를 소설화한 고전소

48) 송시열이 기축년(1649, 효종 즉위년)에 다음과 같이 상소를 올렸다. “옛사람들은 요염한 아내를 미워하고 아름다운 자색을 경계함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비빈을 간택할 때 사대부 집안의 처녀들을 모두 내정(內庭)에다 모아 놓고 그 중에서 가장 자색이 뛰어난 자를 골라서 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여색을 취하지 않는 제후의 도리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며 요염한 아내와 아름다운 자색으로 인해서 화를 불러들이기 십상인 것입니다. 만일 그 선택의 취지가 이미 본래의 그것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예법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후인들에게 채근하기도 어려운 일이니, 그렇다면 그 궁에서 생기는 바르지 못한 일들이 실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이유원(저), 홍승균(역), 『국역 임하필기 3』, 민족문화추진회, 1999, 270-271.

설은 비단 <소현성록>만이 아니다. <사씨남정기>의 사씨도 아름다웠지만 자신을 색이 아니라 덕으로 판단해 주기를 기대했으며, <박씨전>의 박씨는 추모였지만 덕을 지녔기에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사씨남정기>의 유연수, <박씨전>의 이시백도 여성을 취할 때 색이 아니라 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에 반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막상 유연수도 미모에 약하며, <박씨전>의 이시백도 추모는 견딜 수 없어 한다. 이 같은 소설들은 물론 송시열의 지적에서도 확인되듯 색/덕 문제에 대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허위의식을 노정하는 지점이기도 하다⁴⁹⁾. <소현성록> 별전의 외모 서술을 보면, 한편으로는 임씨라는 여성을 내세워 색보다는 덕이 우선순위라고 하며 색/덕 문제를 이념적으로 서사화하기 시작한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는 모순되게 미인에 대한 남성 인물들의 탐닉이 장황하게 그려진다. 이에 비하면 미모 자체가 가치의 하나로 수용되었던 본전 서술자의 인식이 오히려 허위의식이 덜하다고 하겠다.

IV. <소현성록>의 두 얼굴 - 비균질적인 서사 전개

1. 새로운 서사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반영되는 본전

<소현성록>의 본전과 별전에 대한 기존 논의를 참고하면 ‘본전의 작가에 비해 별전의 작가가 전대 소설의 관습에 꽤 익숙하다⁵⁰⁾’고 평가하고

49) 조선시대 여성의 색/덕에 대한 남성들의 태도를 보면 덕이 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설은 덕 안에 이미 색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색과 덕을 거론하는 조선 사대부들의 허위의식에 관한 논의로는 조혜란, 「여성, 전쟁, 기억 그리고 <박씨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참고.

50) 정길수(2005), 228.

있다. 동일 작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앞부분은 교과서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정적인 서사이고, 뒷부분은 당대의 윤리 규범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 있지만 현실 맥락에서는 받아들여졌을 법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동적인 서사라는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일견 군자가 되기 위해 본능을 억제하고 부인보다 어머니를 더 그리워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본전보다는 친숙하면서도 다양하고 역동적인 별전이 더 작품화가 잘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본전보다 별전이 더 친숙한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별전이 고전소설의 서사 관습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장치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소현성이 세 부인을 얻으면서 그 가족 구성원이 겪게 되는 사건들로 구성된 <소현성록> 본전은 당대 고전소설의 창작 관습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부분이며, 그래서 새롭거나 낯설다⁵¹⁾. 본전은 별전이 시도하는 것과 같이 당대 독자들에게 익숙하면서도 흥미를 끌 만한 에피소드나 서사의 긴장을 유발할 만한 사건을 일부러 배치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 대신 종법제 사회에서 이상적인 남녀 인간상을 구축하려고 시도했다. 이것이 본전의 문제의식이므로 서사 역시 일부다처제와 가문의 구도 속에서 움직이는 등장인물들을 통해 그 해결을 도모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소현성이 어떤 부인과 며칠을 자는가, 어머니와 부인들 관계는 거리 조정을 어떻게 하는가, 학문에는 며칠을 할애하는가에 대한 설정이다. 날짜를 정해 두고 부인들 처소에 가며, 가서도 '물고기가 물에서 노는 즐거움'은 굳이 마다했던 소현성의 모습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다. 그는 늘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보고도 못 본 척해야만 했다.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석 부인과 손을 잡고 싶어도 손을 잡게 되기까지 타당하고도 규범적인 정황

51) 이 부분은 오히려 그 이후에 나올 국문 장편가문소설의 서술과 관련지어 볼 때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술이 필요했으며, 혹은 집안에서 둘이 만나고 싶어도 그 과정은 늘 우연한 것이어야 했다. 본전에서는 남성 주인공인 소현성 역시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노력을 놓지 않았던 것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외모 묘사를 보면 본전의 서술은 아름다움, 미모에 대해서는 한껏 인정했다. 여성은 물론 남성의 아름다움도 곧 가치였으며,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평가하는 시선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남녀 주인공들이 여성화 되는 묘사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별전보다 본전의 서술에서 아름다움이 더 강조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도대체 본전은 왜 그렇게 미모에 대한 묘사에 공을 들이고 있는가? 이는 도덕적인 인물형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성적인 억압, 서사에서 남녀 관계에 대한 사건 서술이 원천 봉쇄된 본전의 서술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전의 주인공 소현성은 워낙 도덕군자로서 성적인 욕망은 거의 거세되어 있는 것처럼 그려진다. 이 점에서 소현성의 인물 형상은 마치 사정옥의 인물 형상을 연상시킬 정도이다. 두 인물에게서는 남녀 풍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별전과는 달리 본전에서는 악으로 징치된 교영을 제외하고는 남녀의 만남과 사랑이 거세되어 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이성을 끄는 매력이 된다. 본전이 외모의 아름다움을 빈번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본전 서사에서 사라진 남녀의 성적인 매력과 끌림 혹은 그 가능성을 이런 방식을 통해 우회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전에서는 여성 인물인 교영의 성적 욕망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런 서술은 소현성이 자신의 성을 단속하는 것으로 그려졌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물론 본전의 서사 전략은 성적 욕망을 가시화한 여성이 철저히 벌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방향으로 잡혀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성이 성적 욕망의 주체로 그려질 수 있었다. 또 투기를 둘러싼 본전 서술이 가부장제에 의해 훈육되는 여성 형상을 모색하는 와중에, 조선이 종법

제 사회로 진입하면서 무력화되었던 당대 여성들이 겪었을 심리적 고통과 현실이 작품 가운데에 드러나게 된다. 이는 본전이 가부장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서사를 기획하고 있지만 결코 조화로운 모습만을 그리지 않음으로써 그 현실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문제를 문제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본전은 오히려 진지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 결과 서사 전개 역시 기존의 고전소설 서사 방식에 기대지 않고 그 문제의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소설화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본전 서사는 일상적인 사건을 일상적인 방법으로 묘사하는 정적인 서사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여성의 입장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다.

2. 남성 영웅 서사를 지향하는 별전

<소현성록> 본전과는 달리 별전은 고전소설의 창작 관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장르 영화가 갖는 친숙함이 대중성을 보장하듯 고전소설의 창작 관습을 적절하게 활용한 별전은 친숙한 사건들로 인한 서사의 역동성을 확보하였다. 그런데 인물들이 대거 남성인물로 바뀌고 공간이 집안에서 집밖으로 바뀌었으며 그 인물들은 더 이상 심리적으로 갈등하거나 자의식에 시달리지 않고 사건과 사건의 연쇄로 서사가 치달게 되면서 별전은 본전이 지녔던 문제의식을 더 이상 견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남성 인물들은 공간을 옮겨 다니면서 산 속에서 요괴를 퇴치하거나 전쟁터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같은 서사에서는 심리보다는 행위가 주를 이루면서 심리 묘사는 밀도가 약해지고 더 이상 대화나 감정의 기복이 사건화되지 않는 것이다.

별전의 남성 주인공이 집안에 있을 때에는 여성 인물 편력이 전개된다.

소운성은 자신의 욕망대로 거칠게 행동하는 인물이며, 소운명의 경우는 미인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인물 다 여성 인물들을 도구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⁵²⁾. 또 그들은 사태에 대해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기에 운성과 운명 모두 소영이나 이씨 같은 무고한 인물을 가두거나 혹은 죽을 위험에 이르도록 방치해 둔다. 남성 영웅들은 자신들의 성적인 욕망을 전혀 절제하지 않은 채 소위 풍류남으로 행세하고 이 과정에서 상대 여성들은 마치 인형처럼 수동화된다. 남성들의 영웅 서사인 <소현성록> 별전에서 여성들의 현실은 본전에서처럼 문제 제기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별전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이런 서사가 다시 그 궤적을 바꾸게 된다. 권 14의 소황후 인물 묘사에는 행장이나 여훈 혹은 『열녀전』을 연상시키게 하는 구절들이 빈번하게 들어가고 영웅 서사를 구가했던 남성 인물들은 마치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유교적인 도덕군자의 삶의 궤적을 따라 그 다음 행위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인다⁵³⁾. 그야말로 유교적인 이상, 가부장제의 이상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그들의 선택 역시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해 놓지 않아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서사는 입체감을 상실하고 만다. 그러다가 15권에 이르면 <소현성록>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대거 죽게 되는데 이 인물들의 죽음은 곧 서사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즉 양부인과 소현성이 일이 년 안에 죽고, 그 후 그 손자들의 죽음까지 연이어지는데 이 과정의 서술은 거의 평면적인 설명

52) 정선희(2005)는 소운성이 형씨에게 기울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가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명현공주에 대한 반감을 형씨에 대한 집착으로 표현했던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53) 특히 14권, 15권에 이르면 소부의 남성들이 영화의 극치에 도달한 후 스스로 은퇴하여 농부로서의 삶을 살고 농민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주면서 칭송을 받는 대목이 나온다. 이때 이들이 행동하는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물들의 선택이 기계적인 것처럼 그려졌다.

으로 이들의 죽음을 처리하고 있다.

V. 결론

<소현성록> 연작의 이본 상황을 보면 이 작품은 본전과 별전이 따로 읽히지 않고 합쳐져 마치 한 권처럼 읽혔다. 그러나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 양상을 고찰한 결과, 심리 묘사와 외모 묘사에 있어서 본전과 별전은 차이를 보였다. 심리 묘사와 외모 묘사를 고찰하기 전에도 <소현성록> 본전과 별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그러한 논의는 본전의 작가에 비해 별전의 작가가 훨씬 더 능숙한 이야기꾼인 것 같다는 식으로 연결되었다.

그런데 <소현성록>의 서술 문제를 살핀 결과, 별전보다 본전의 서술이 훨씬 문제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자칫 지루하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본전의 서술은 가부장제 이념에 잘 맞는 인간형 구축이라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그에 걸맞은 이야기를 진지하게 모색한 결과 혼인을 둘러싼 서사를 선택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엮어 갔던 것이다. 본전의 경우는 심리 묘사가 뽐진하게 전개되고 외모 묘사에서는 얼굴의 생김 자체에 대한 묘사가 많으며 아름다움이 곧 가치로 그려진다.

이에 비해 역동성 있는 서사로 간주되었던 별전의 심리 묘사 어휘는 본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략해지면서 대신 감정에 수반되는 행동을 서술하고 나아가 감정 자체에 대한 서술 대신 예법 준수 여부를 더 중요하게 서술하고 있다. 외모 묘사 역시 색과 덕의 이중적 가치 문제를 이념화하여 임씨라는 인물 형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예들을 보면 본전에 비해 자유롭게 보였던 별전이 본전 못지않게 예법과 이념에 경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별전이 새로운 서사를 기획하기보다 고전소설의 하위 장르 관습에 기대는 창작 태도를 보이는 것과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본전과 별전의 이러한 차이는 궁극적으로 관습화된 시선 유무와 연결되는 문제이다. 본전은 결코 관습화된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기에 정적이기는 하나 그만큼 당대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서사를 전개시켰다. 이에 비해 별전은 유교적 가부장제와 가문의 확립을 모색하는 본전의 문제의식을 지속시키지 못한 채 관습화된 시선으로 서사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묘사의 선택도 어느 정도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자동화된 경향을 나타내었고 사건 역시 초역사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졌다. 물론 <소현성록>은 17세기 조선의 가부장제 기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본전과 별전 모두 여기에 충실하다. 그러나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 양상을 고찰한 결과, 일견 역동적이고 자유로워 보이는 별전이 정적이며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본전보다 더 이념에 따른 공식적인 서술을 하는 데 비해 이념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본전이 당대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을 더 꿰뚫히게 그려내며 진지한 작품 세계를 지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홍균, 「복수주인공 고전장편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0, 1-176면.
- 문용식, 「<소현성록>의 인물형상과 갈등의 의미」, 『한국학논집』31,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7, 99-118면.
-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4, 1-258면.
- _____, 「<소현성록>에 나타난 공주훈의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5-35면.
-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 127-154면.
- 송성옥,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한국고전연구』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241-270면.
- _____, 『한국 대하소설의 미학』, 월인, 2002, 1-384면.
- _____,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1-368면.
- 이유원, 홍승균(역), 『국역 임하필기 3』, 민족문화추진회, 1999, 1-443면.
- 이주영, 「<소현성록> 인물 형상의 변호와 의미-규장각 소장 21권을 중심으로」, 『국어교육』9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345-367면.
-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1-352면.
- 장시광, 「<소씨삼대록>의 여성반동인물연구」, 『은지논총』9, 2003, 107-148면.
- _____, 「<소현성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 양상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11, 2004, 347-375면.
-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파’ 연구」, 『한국고전연구』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69-100면.
-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37-68면.
- 장효현, 「전기소설의 장르 개념과 장르사의 문제」,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출판부, 2002, 51-81면.
- 정길수, 『한국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1-368면.
- 정병설, 「장편대하소설과 가족사 서술의 연관 및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12집, 1997, 221-248면.
- _____, 「조선후기 여성소설과 남성소설의 비교 연구」, 『국어교육』10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2, 401-427면.
-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그 의의」, 『고소설연구』4, 한국고소설학회, 1998, 293-327면.
- 조광국, 「<소현성록>의 별열 성향에 관한 고찰」, 『은지논총』7집, 2001, 87-113면.
- 조혜란, 「여성, 전쟁, 기억 그리고 <박씨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279-310면.
-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1-490면.

ABSTRACT

A Study on Two Distinct Narratives of *So-hyn-sung-rok*

Cho, Hae-ran

So-hyn-sung-rok is composed of two parts: the first part of the father's story and the second part of sons' story. This study aims to comparatively analyse these two parts focussing on their descriptions. Considering the descriptions of these two parts, two aspects are noticeable: the description of characters' outward appearance and the description of psychology and feelings of characters.

In the first part of *So-hyn-sung-rok*, there found lots of descriptions of characters' external appearances and characters' good looks were directly related to characters' virtues, while characters' psychology was also realistically developed. On the other hand, in the second part of this novel which has been thought more dynamic work, psychological descriptions were reduced compared to the first part. Instead of psychological analysis, actions are more focussed and instead of descriptions of characters' feelings, the issue of observing Confucian manners is more importantly treated in the second part. This shows that the second part which has been regarded more free from Confucianism is also deeply influenced by Confucianism. This is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second part does not try to develop new narrative but relies on the conventions of the sub-genres of the Korean classic novels.

It is no doubt that *So-hyn-sung-rok* is closely connected to the patriarchy of Chosun dynasty in the 17th century, and it is true of both parts. But closely examining these two parts' narratives, I found that the second part which has been thought to have more dynamics and free spirits developed more ideological narrative compared to the first part. Rather, the first part which had been thought to be more strict about

Confucianism, showed more realistic narrative of various problems at that period, more seriously pursuing a literary work.

Key Words *So-hyn-sung-rok*, three-generation stories of Chosun dynasty, descriptions, outward appearance, psychology, feelings

논문투고일 : 2006. 5. 15

심사완료일 : 2006. 5. 29

게재확정일 : 2006. 6. 12

K C I